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13호 HYUNBULNEWS.COM 2025년 1월 1일(음력 12월 2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보살의 마음으로 한 해 시작을…

새해를 맞는다. 올 한 해는 어떨까. 향상일로를 걷는 인류이지만 삶은 점점 힘겹기만 하다. 몹시도 시끄러운 시절이다. 조용히 눈이라도 감아야 '나'를 만날 수 있는 오늘,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는다. 우리는 누구나 보살의 화신인 십이지신의 이름 하나 씩을 받아 이 세상에 왔다. 뱀왕 모짤린다가 부처님의 선정을 외호하고 귀의했던 것처럼 보살인 우리 모두가 부처님 법의 위대함을 다시 새기고, 서로를 보살로 바라본다면 세상은 부처님의 선정처럼 평온해지지 않을까. 템플스테이 참가 대중이 밝아오는 아침 햇살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사색에 잠겨 있다.

글=박재완 기자 · 사진=임은호 기자

종단 · 군승 · 신도조직 등 역량 결집 기념사업 '봇물'

관음종 창종 60주년 맞아
태허 조사 선양 사업 집중

군종특별교구 출범 20주년
군포교 내실 다지기 나서

70살 생일 맞는 중앙신도회
선명상 대중화 대회 계획 중

신중일 · 김민재 · 김가령 기자

2025년 한국불교계는 종단·군포교·신도조직·복지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기념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대한불교관음종(총무원장 법명 스님)이다. 올해로 창종 60주년을 맞는 관음종은 개산조 태허 조사 선양사업에 매진할 계획이다.

태허 조사는 종로 파고다 공원(현 탑골공원)에서 대중들에게 1958년부터 1960년까지 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거리 설법을 했다. 거리 설법을 마친 이후에는 전국을 순회하며 대중을 만나 설법·포교한 것으로 유명하다. 관음종 종정 영산 홍파 대종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태허 조사의 사상과 정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우선 조사스님 관련 다큐멘터리가 제작에 들어갔다"며 "더불어 태허 조사가 저술한 가사집 〈인생탈춤〉을 작품으로 만들어보려 한다. 10월 중 중국, 일본, 베트남 불교 지도자를 초청해서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교의 황금어장, 군포교를 위해 탄생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가 2025년 출범 20주년의 해를 맞이했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군포교 활성화에 매진할 것"이라며 군포교 핵심 사업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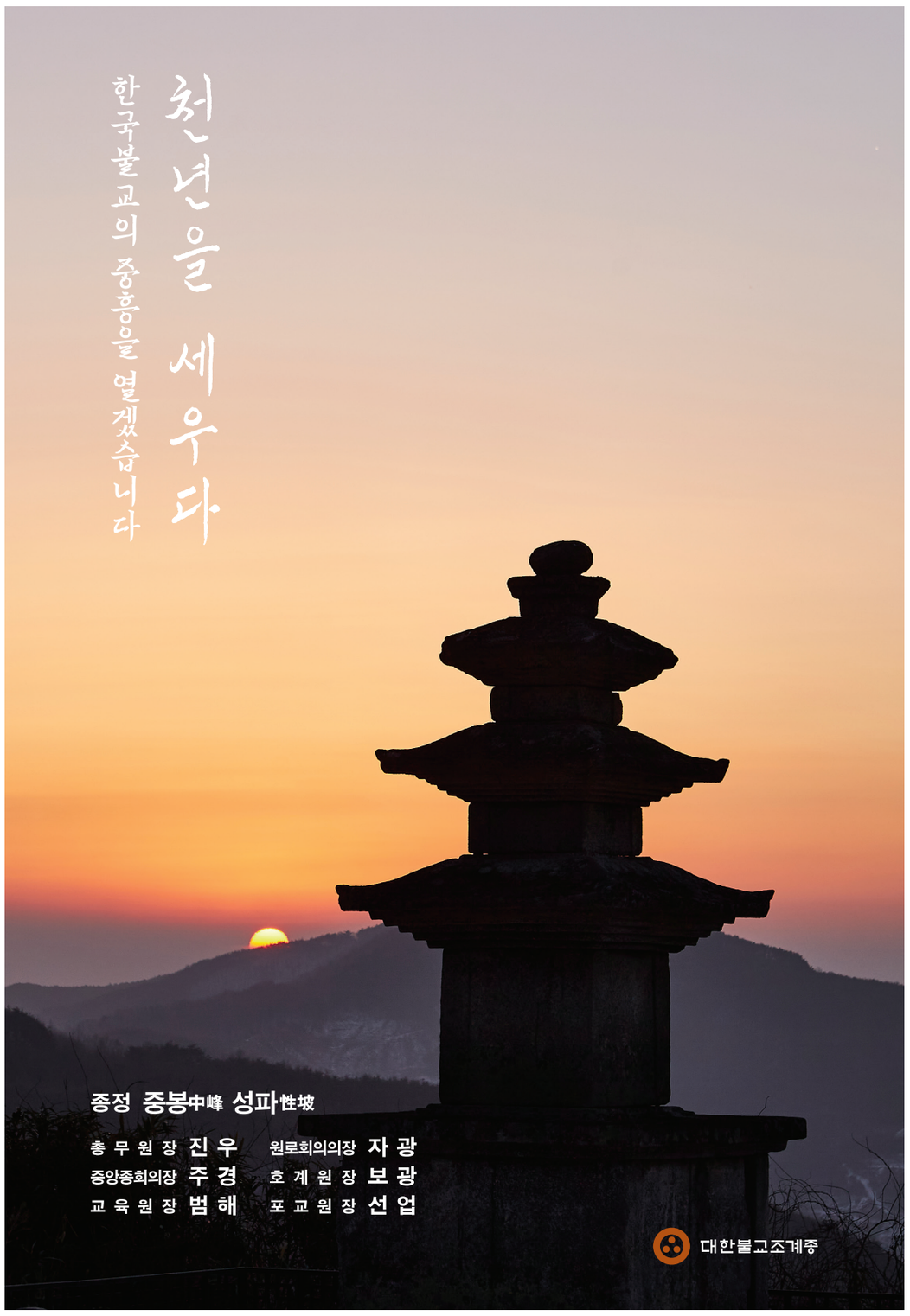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군에 선명상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격무에 지친 군장병이 선명상으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조계종 미래본부에서 개발한 '선명상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법원 스님은 "호국 홍익사 주지 관묵 스님의 '통신보안' 프로그램처럼 군장병이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활동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며 "순례 승가결사체인 '상월삼조회'와 함께 군장병을 위한 순례 프로그램을 기획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군불자 관리 시스템'에도 박차를 가한다. 수계를 받고 부대에서 신행생활을 하던 군장병이 전역 후 다시 불교와 멀어지는 현상을 미연에 막고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에 수계 장병 DB(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관리에 진력, 대학과 사회로 돌아가는 청년들의 불연(佛緣)을 이어 나가는데 군종특별교구가 일익을 맡을 예정이다.

조계종 45개의 신도단체를 이끄는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는 올해로 70살 생일을 맞는다. 중앙신도회는 창립 70주년 기념식 개최와 함께 '선명상 확산을 위한 전국 신도대회'를 열 계획이다.

〈A3면에 계속〉



2025년 신년특집호
A·B·C 섹션 80면 발행

데스크 초대석 A7
관음종 종정 영산 홍파 대종사



신년특집
몸 튼튼 마음 튼튼
B1 · 2 · 4 · 5 · 8 · 9



슬기로운 불교생활
C1 · 2 · 3 · 6 · 7 · 8



불교가 알아야할 2025트렌드
A22 · 23
불교와 뱀 C19
신년법어·신년사
A13 · 14 · 16 · 17 · 18 · 19
현대불교신문 30주년 행사 현장
A4 · 5